

# **석도국제훼리 주식회사 (SHIDAO INTERNATIONAL FERRY CO.,LTD)**

## **1. 창립 배경 - 충청 이남권 對中(대중) 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

2000년 대 중반,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었으며, 이는 인적, 물적 국제 교역의 수요 증가를 일으키게 된다.

특히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른 산둥반도 일대의 항만 인프라 확충은 한국과의 해상 물류 수요를 더욱 확장시켰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어 신규 노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군산(한)↔석도(중) 노선이 주목받기 시작한다. 군산↔석도 노선은 한, 중 해상항로 중 최단거리에 해당하며, 기존 한중 카페리 노선의 국내 기항지가 인천, 평택에 집중됨에 따라 충청 이남권의 운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에 대한 해결책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2007년 12월 12일 한국의 군산과 중국의 석도를 잇는 한중 국제 카페리 항로 개설을 위한 합작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 **2. 사업의 개시 - 군산↔석도 항로의 첫 닻을 올린다.**

2008년 1월 31일 한중 양국간 호혜, 상호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668번지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본사를 위치한 석도국제훼리 주식회사의 설립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동년 2월 15일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음에 따라 희망 찬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항로에 투입될 선박으로는 일본에서 건조된 17,022톤의 중고 선박(여객정원 750명, 화물 적재 수량 203TEU)을 확보하였으며, M/V SHIDAO(시다오)로 명명되었다. 이후 해양수산부(당시 국토해양부)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주 3항차 운항)를 취득하고, 2008년 4월 9일 군산에서 석도로의 대망의 첫 출항을 시작으로 여객, 화물 운송서비스를 개시하였다.



### 3. 지역의 물류 허브로 성장 - 선박의 확충과 운항 항차의 확대

군산↔석도 항로는 한, 중간 최단거리 정리항로(389km, 운항시간 약 12시간)로 특히 중국내 내륙운송 접근성이 뛰어난 중국 산둥성 영성시 석도항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으며, 석도항은 다른 경쟁항로의 기항지인 위해항 및 청도항 등과 비교하여 지리적, 물류적 이점을 갖춘 잠재력 있는 항만으로 평가되었다.

사업 초기 주 3회 운항 체계로 시작한 석도국제훼리는 점차 인적, 물적 운송수요의 증가에 따른 선박 부족과 스케줄 제약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회사는 선박의 추가 투입을 통한 운항 항차 확대와 기존 선박의 교체를 통해 서비스 품질의 제고를 추진하게 된다.

최초 운항을 시작한지 10년이 지난 2018년 4월에는 **신조 선박 NEW SHIDAO PEALR 호**를 추가 투입하며, 주 6항차 운항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다양한 운송수요에 대응하였으며, 이듬해 2019년 7월에는 노후화된 기존 선박을 대체하기 위하여, **신조 선박 GUNSAN PEARL호**를 교체 투입하면서 운항 효율성과 고객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키게 된다.

이 시기 석도국제훼리 주식회사는 단순 해상 여객, 화물 운송회사가 아닌 한중 양국간 무역과 관광,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복합 해운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하게 된다.



#### 4. 위기와 극복 – 팬데믹 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항해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COVID-19 팬데믹은 석도국제해리에게도 큰 시련으로 다가왔다. 국경간 이동이 봉쇄됨에 따라 여객운송이 전면 중단되며, 국제 해상 여객운송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이로 인해 회사는 주 3항차로 운항 축소, 인원 감축 및 임직원 연봉 일부 반납 등 운항비용 최소화를 위한 고육지책을 통해 생존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였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 회사는 사업구조를 ‘화물운송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게 되면서 생존을 넘어 성장의 발판을 구축하게 된다.

기존의 중국-한국-일본을 잇는 LAND-BRIDGE 화물 (TRANSHIPMENT, 환적)에 더해 ‘SEA&AIR’ 복합 운송 화물 등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였으며, 운항 축소에 따라 운항을 잠정 중단 중이던 선박 ‘NEW SHIDAO PEARL’호를 2021년 7월 울릉크루즈(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운항 비용 절감을 넘어 추가 수익 확보에 성공하게 된다.

이러한 과감한 구조 조정과 전략적 변화는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 위기의 극복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경영 환경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 5. 현재와 미래 - 한중 교류의 거점 기업으로 도약

2022년 이후, 국제 해운업계는 팬데믹 쇼크에서 점차 회복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흐름속에 석도국제해리는 여객 및 화물 수송량의 안정세를 찾아가며 다시금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 정세변화, 환율 및 유가의 변동 등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산적해 있지만, “상상 그 이상을 향해!”라는 슬로건 아래 해운 전문성과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동북아 물류 허브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오늘도 노력을 다하고 있다.

회사는 앞으로도 군산을 기반으로 한 전북지역 향토 해운기업으로서 지역 경제와의 상생을 추구함은 물론, 국제 교류와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할 것이다.

